

세계인을 키우는 어학시스템

(주)닥터위콤... 윤만희 회장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점을 개선, 능률과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것이 바로 발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나는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지난 발명과 함께 걸어온 나의 삶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에 무작정 상경, 처음에는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공부에 나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이삼십대 시절엔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었지만, 자본금 1백만 원으로 어학실습기기를 만드는 서부 산업을 설립한 이후로는 줄곧 아이디어와의 전쟁에 몰두해 왔다.

기술개발에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투입했기 때문에 회사 운영자금은 항상 빠듯했다. 매일매일 부도를 막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나날이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결국 회사는 은행에서 부도처리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몰두해 왔던 발명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는 법이다.

나는 법정관리를 받기 위해 애썼고, 정성이 가락했는지 지금까지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와중에도 발명에 대한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아서 닥터위콤이라는 가정용 어학실습기기의 개발에 더욱 몰입했다.

그 결과, 1991년에 독일국제발명품전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전국 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996년 5월 20일 발명의 날에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대기업의 사장들과 함께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발명에 힘입어 훈장을 수훈하던 바로 그 날에 나의 회사도 법정관리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은 국경 없는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고도의 기술개발과 특허의 취득이라는 방법밖에 없다. 세계시장이라는 경쟁 무대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들을 앞서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세계 최고의 어학학습기 “닥터위콤”

제가 닥터위콤을 발명하게 된 동기는 예전에 어학실습실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니까 소니 등 수입제품이 장악을 했었죠. 당시 호기심에 기계를 자세히 관찰했는데, 순간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기본 원리가 기계에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특허를 냈죠. 그 특허를 갖고 국내 생산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 외국제품은 수입 금지가 되었어요. 우리제품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웃음)

세계인을 키우는 어학시스템 “닥터위콤 랭귀지 튜터”

닥터위콤 랭귀지 튜터는 제가 갖고 있는 발명 특허 중, 기존에 만들어진 교재로서 외국어 학습, 시청각 교육은 물론 웅변 연습, 노래 연습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멀티 플레이어 카멜레온 만국어 어학 학습기예요.

교육공학에 근거해서 만든 이 제품은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는데, 학습자가 원하는 문장과 횟수를 자기 수준에 맞게 재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언어 습득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국어를 돈 주고 배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 속에 입력이 되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닥터위콤 랭귀지 튜터는 사용해 보셔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웃음)

발명계획

앞으로는 통신과 방송이 컴퓨터에 융합되기 때문에 모든 교육매체는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학전용컴퓨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면 모든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새롭게 선보일 저의 발명품을 기대해주세요.(웃음)

발명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대개 발명가들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신기하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동조해주면 당장이라도 재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꿈에 부풀게 돼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발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의 인구가 13억인

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만 팔아도 얼마라는 산술적인 계산을 하게 돼요. 그게 본인을 함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에디슨 등 유명한 발명가를 보면 크게 돈 번 사람이 누가 있

습니까. 다음 사람이 돈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명가는 발명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기업은 능력 있는 기업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명가가 사업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나부터도 그랬고...

발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개량특허를 내고, 좀 더 좋은 발명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발명가나 사업가 모두에게 좋을 듯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꿈을 함께 깊어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평생 한 가지 아이템을 갖고 발명과 사업이라는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어 교육 때문에 수십조 원을 버리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를 내놔도 자신과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개발은 제가 하고, 돈과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Dr. WICOM
LANGUAGE
TUTOR

【약력】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 수료

【수상경력】

- 1986 상공부 장관상 수상
- 1991 국무총리 표창
- 1991 대통령상 수상
- 1994 미국 국제발명전 대상 수상
- 1995 독일 국제발명전 금상 수상
- 1996 중국 국제발명전 금상 수상
- 1996 금탑 산업훈장 수훈

| 발명특허 2008. 2

취재 _ 김민국 주임(혁신기획팀)